

### 경주박물관, 사리공양석상 공개

10월 29일부터 불교미술실서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사리공양석상 등 경주 금장대 출토품 3점을 상설 작품으로 전시한다. 이들 작품은 10월 29일부터 미술관 1층 불교미술실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경주 서천가의 석장동 금장대(金丈臺)에서 1980년에 수습된, 이른바 사리공양석상 1점은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상설전과 특별전에 출품된 바 있다. 그 뒤 2011년에 계림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한 금장대 발굴조사 당시, 인물상이 새겨진 또 다른 석상 1점과 거북무늬석상 1점이 조선시대 건물터의 주춧돌 자리에서 출토되었다.

경주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는 2011년 금장대에서 새로 나온 석상 2점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경주박물관 소장품 1점을 함께 선보이는 첫 번째 자리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물상이 새겨진 석상 2점은 정면에 새

겨진 조각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화면 가운데에는 탁자 위에 뚜껑 덮인 그릇이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 상반신이 사람 형상을 한 상상의 새인 가릉빈가(迦陵頻伽)와 함께, 그릇을 향해 합장하는 하늘의 천인(天人) 10명의 모습이 좌우대칭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장면의 주제는, 대개 가운데에 놓인 그릇을 불사리기(佛舍利器)로 보아 사리를 공양하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그릇을 향로(香爐)로 간주하여 향로공양 장면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거북무늬석상은 아직까지 비슷한 예가 발견되지 않은 독특한 형상이어서 주목된다. 물결(또는 구름) 위에 고개를 한쪽으로 돌린 거북이를 입체감 있게 새겼다.

이번에 소개하는 3점의 석상은 통일신라 8~9세기 부조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경주박물관은 "사리공양석상의 경우 현재 거의 전하지 않는 통일신라 회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054)740-7535 정혜숙 기자



경주박물관이 불교미술실을 새단장했다. 사진 왼쪽은 사리공양석상과 오른쪽은 거북무늬석상.



### 동국대 총동창회 '2013년 동국미술대전'

11월 16일부터 총 114점 전시

동국대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2013년 동국미술대전이 11월 6~12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동국대 동창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교수 9명과 동문작가 105명 등 모두 114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꽃을 소재로 한 김창균의 '심연', 손연철의 석가모니불 좌상, 고승희의 '내가 너인지 네가 나인지', 권지은의 'Offering to you'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이번 전시회는 동국대 미술학부의 불교미술 작품과 한국화, 서양화, 조소 등 각 미술 장르에서 독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고승희의 '내가 너인지 네가 나인지'

## 《능엄경》 춤으로 풀며 불교에 푹 빠졌어요

마목무용단 '아난야,아난야' 11월 13일부터 성균소극장서



윤민석 감독

"불교라는 종교에 무지했던 제가 《능엄경》이라는 수승한 경전을 공연으로 만들 고자 했던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성균소극장 이철진 대표님의 제안에 선뜻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이 작품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 큰 산이었고 또 그래서 너무나 매력적인 과정이었어요."

《능엄경》을 무용으로 풀어난 마목무용단 윤민석 감독의 '아난야,아난야'가 11월 13일~19일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와 11월 22일~24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각각 공연된다.

《능엄경》은 《금강경》·《원각경》·《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강원의 사교과(四教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왔다. 시공간 사이의 깨달음을 춤으로 보여준 '바르도'를 작품으로 풀어난 윤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능엄경》의 판타지와 스토리를 토대로 인간적 구애 중심의 삶과 존재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분분한 심연을 추상적으로 풀어냈다.

윤민석 감독은 "《능엄경》 속에는 스토리라인과 판타지가 매우 풍부해요. 아난야 창녀의 주술에 빠져 파계할 위기에서 구원을 얻는 장면에서 내용이 시작되죠. 이후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 7도 윤회, 50변마장 등 시공을 초월하는 판타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엄한 장면을 몸짓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윤민석 감독은 말한다. "작업의 첫 단계로 능엄경을 찾아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

수록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불교라는 종교에 무지했던 저였기에 더욱 더 어려웠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없는 매력을 느끼는 경이 또한 《능엄경》입니다."

40대가 접어들면서 흥행 위주의 작품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는 윤민석 감독은 이렇게 《능엄경》을 통해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 "대원사 주지 석문 스님의 자문을 구해 공부를 했어요. 《능엄경》은 밝은 깨달음을 깨우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속삭던 일들도 《능엄경》을 읽으면 풀렸어요. 그

《능엄경》 공부하며 불법 공부 시작  
단원들과 3천배하며 안무 구성  
"앞으로 시리즈로 작품 만들 터"

렇게 경을 통해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석문 스님의 입재하에 단원들과 함께 매일 3천배를 올렸다는 윤 감독은 이를 통해 왜 절수행을 해야하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같이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라 단원들도 거부감 없이 함께 3천배를 할 수 있었어요. 3천배, 물론 힘들죠. 2천배가 넘어가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절을 하면서 육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 육체가 저의 업을 쌓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 와닿았어요. 이렇게 고비를 넘기면 마음의 갈등이 멈추고 다시 평정심을 찾죠. 그렇게 3천배가 마무리되면 그것이 곧 선의 세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무식함을 드러내는



《능엄경》을 무용으로 풀어난 윤민석 감독의 '아난야,아난야'가 11월 13일~19일 대학로 꿈꾸는 공작소와 11월 22일~24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각각 공연된다.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윤 감독. 그만큼 불교에 갓 입문한 그가 《능엄경》을 몸짓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웠다는 말이야. 하지만 그의 새로운 도전은 불교계에서도 무용계에서도 환영받을 만하다. 《능엄경》 중심으로 불교공부를 하고 있다는 윤 감독은 앞으로도 춤과 불교수행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바람과 《능엄경》 공부는 같은 방향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능엄경》을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능엄경을 계속 공부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어 이를 춤으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한편, 윤민석 감독은 한성대 무용학과를 나와 파리 8대학 공연예술대학 무용학과를 수료했으며 경기대 국제문화대학원 무용극전공 무용학 석사를 받았다. 서울예대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출강중이다. 공연으로는 육완순 현대무용 50년 페스티벌 '나비(butterfly)' 안무, 성균소극장 화요상설공연 '하얀코끼리' 등 다수가 있다. (02)747-503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구도자의 정신 불화로 꽃피우다

불화장 이수자 회원 불자 한자리에

중요무형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 회원들의 불화를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제 3회 동심 불화작품전이 11월 23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故 석정 스님이 이름을 붙여준 동심회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반에서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격년제로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해월의 괘불, 권영수의 '아미타삼존' 등 다양하게 불화를 감상할 수 있다. 동심회 회장 이수자씨는 "불화 조성은

한순간에 전광석화처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삼매의 인내가 따라야 하는 일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패이게 하듯 구도자의 수행처럼 끝없이 닦아야 과정을 불화 그리기 조성에 열정을 태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천조 작품도 화려하다. 수안 스님의 '반야심경경각', 송천 스님의 '동진보살', 전연호 씨의 '보현보살', 정병국 씨의 '관음보살', 하경진 씨의 '석가모니원불량', 조해중 씨의 '석가모니후불량', 오기용 씨의 '십이지산', 이승규 씨의 '관음보살'이 출품된다. 한편,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불화전문 박물관으로, 불화반은 1999년부터



권영수의 '아미타삼존'

이어서 오고 있으며 석정 스님의 이수자가 60명 넘게 배출되었다. (055) 382-1001 정혜숙 기자

### BBS 마인드 힐링 콘서트 '고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1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콘서트가 마련된다. 부산BBS에서는 창사 18주년 기념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BBS 마인드 힐링 콘서트 '고맙습니다'를 마련한다.

11월 8일 오후 7시부산시민회관 특설 무대에서 2시간 동안 무료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에는 '멀어져간 사람들'의 박상민, 'Tears'의 소찬휘, '나 같은건 없는건 가요'의 추가열,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비부터, 현대불교음악가 아윤 등이 출연한다. 관람료는 무료 박경수 부산지사장

since 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붓다쇼핑 TEL.(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상호인쇄

# 제브라붓펜 3호 입하!

50자루 이상 @ 2100원  
정가 3000원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 이상 @ 1,000 원  
• 규격 : 25.8cm x 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 원  
• 규격 : 30cm x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 원  
• 규격 : 26cm x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 사이즈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2000부 @ 600 원 • 100부 @ 800 원 @ **650** 원  
• 규격: 9.5cm x 13.4cm • 매수: 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2000부 @ 400 원 • 100부 @ 600 원 @ **450** 원  
• 규격: 8.9cm x 9.5cm • 매수: 16장